

# 『素問·脈要精微論』의 寸關尺 臟腑配屬에 대한 고찰

참사랑 병원<sup>1</sup>

梁光烈<sup>1</sup> \*

##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Jangbu(臟腑) to Chon-Gwan-Cheok(寸關尺) in 『Maekyojeongmiron(脈要精微論)』

Yang Kwang-yeol<sup>1</sup> \*

<sup>1</sup>Cham Sarang Hospital

In 『Maekyojeongmiron(脈要精微論)』, Jangbu(臟腑) is assigned to Chon-Gwan-Cheok(寸關尺) in according to the position.

Kidney[腎] is assigned to the backward area of Cheok. Abdominal cavity[腹中] is assigned to the middle area of Cheok. Hypochondrium[季脇] is assigned to the forward area of Cheok. Liver[肝] is assigned to the backward area of left Gwan. Diaphragm[膈] is assigned to the forward area of left Gwan. Stomach[胃] is assigned to the backward area of right Gwan. Spleen[脾] is assigned to the forward area of right Gwan. Heart[心] is assigned to the backward area of left Chon. Central part of the chest[膻中] is assigned to the forward area of left Chon. Lung[肺] is assigned to the backward area of right Chon. Thoracic cavity[胸中] is assigned to the forward area of right Chon.

This method of assignment is simple and useful in clinic.

**Key Words** : Jangbu(臟腑), Chon-Gwan-Cheok(寸關尺)

## I. 서론

『內經』의 맥진법에는 臟腑經脈遍診法, 三部九候法, 人迎寸口對比法, 獨取寸口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獨取寸口法은 『難經』과 『脈經』을 거치면서 이론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었고 후세에 가장 보편적인 맥진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獨取寸口法의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寸口만으로 臟腑를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寸口の 세 부분인 寸關尺에

각각 臟腑를 配屬하는 것이다. 寸口로 臟腑를 살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素問·經脈別論』에서 “氣口는 (길이가) 一寸이 되는데 死生을 결정한다.”<sup>1)</sup>라고 하였고, 『素問·五藏別論』에서는 “五味는 口로 들어와 胃에 저장되어 五藏의 氣를 기른다. 氣口 또한 太陰이니 이 까닭에 五藏六府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나오고 그 변화는 氣口에 나타난다.”<sup>2)</sup>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寸關尺의 臟腑配屬에 대한 것은

\* 교신저자 : 梁光烈. 참사랑 병원.  
경남 창원시 팔용동 197-3번지.  
E-mail : podocy124@empal.com Tel : 055-294-7575.  
접수일(2008년 12월 10일), 수정일(2009년 2월 8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經脈別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6. “氣口成寸, 以決死生”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42.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六府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

『素問脈要精微論』에 그 기본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素問脈要精微論』의 내용에 대해서 寸口脈診法이 아닌 尺膚診法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학설이 있고, 또 구체적인 寸關尺 臟腑配屬에 있어서도 前後, 左右, 浮沈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臟腑配屬 이론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素問脈要精微論』의 寸關尺 臟腑配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II. 본론

『素問脈要精微論』의 寸關尺 臟腑配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尺의 內側 부분은 양쪽이 季脇이다. 尺의 外側 부분으로는 腎을 살피고 尺裏 부분으로는 腹中을 살핀다. (尺의) 위에 붙은 부분에서 왼 손의 外側 부분으로는 肝을 살피고 內側 부분으로는 鬲을 살피며, 오른 손의 外側 부분으로는 胃를 살피고 內側 부분으로는 脾를 살핀다. 다시 그 윗부분에서 오른 손의 外側 부분으로는 肺를 살피고 內側 부분으로는 胸中을 살피며, 왼손의 外側 부분으로는 心을 살피고 內側 부분으로는 臆中을 살핀다. 앞으로는 앞을 살피고 뒤로는 뒤를 살핀다. 위쪽 경계의 윗부분은 胸과 喉의 일이다. 아래쪽 경계의 아랫부분은 少腹, 腰, 股, 膝, 脛, 足의 일이다.”<sup>3)</sup>

이 문단에서의 尺의 의미와 內외의 부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尺의 의미

尺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尺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尺膚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尺을 尺膚로 보는 醫家들은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의 내용이 尺膚診法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尺을 尺脈으로 보는 醫家들은 위 문단을 寸口診脈法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먼저 尺을 尺膚로 보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을注하면서 “마땅히 尺裏 이상의 피부로는 胸中の 병을 살핀다.”<sup>4)</sup>라고 하였다. 이는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을 尺膚로 본 것이다.

丹波元簡은 『素問識』에서 “분명 여기서의 尺은 팔 안쪽의 一尺이 되는 부분이며 결코 寸關尺의 尺이 아니다. 寸口를 寸關尺의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難經』에서 시작되었다. 馬蒔와 張介賓 등의 여러 醫家들이 寸關尺의 尺으로 해석한 것은 『內經』의 뜻과 어긋난다.”<sup>5)</sup>라고 하여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이 尺膚임을 분명히 하였다.

尺을 尺脈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를注하면서 “사람의 몸에서 맥이 뛰는 곳은 비록 많지만 오로지 이 氣口の 세 부분만이 유독 길이가 一寸九分인 까닭에 묶어서 寸口라고 부른다. 나누어 말하면 外側은 寸部가 되고 內側은 尺部가 된다.”<sup>6)</sup>라고 하였다. 이는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을 寸口の 尺脈으로 본 것이다.

馬蒔도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에서 『素問脈要

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脈要精微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9.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鬲,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臆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4) 楊上善 著. 李克光等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511. “當尺裏以上皮膚, 以候胸中之病.”

5)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12.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 寸口分寸關尺三部, 昉于難經, 馬蒔諸家以寸關尺之尺釋之, 與經旨差矣.”

6)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1. “人身動脈雖多, 惟此氣口三部, 獨長一寸九分, 故總曰寸口. 分言之, 則外爲寸部, 內爲尺部.”

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를注하면서 “이는 臟腑의 맥이(寸關尺) 각 부분에 나타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한 것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위의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尺膚診法の 내용이 『靈樞·論疾診尺』을 비롯하여 『靈樞·邪客』, 『靈樞·邪氣藏府病形』, 『素問·平人氣象論』 등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按尺寸，觀浮沈滑澹，而知病所生.”<sup>8)</sup>, 『素問·平人氣象論』의 “尺脈緩澹，謂之解體，安臥.”<sup>9)</sup>, 『素問·奇病論』의 “帝曰人有尺脈數甚，筋急而見，此謂何病?”<sup>10)</sup> 등에서 尺脈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하려면 문장의 앞뒤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의 앞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心脈, 肺脈, 肝脈, 胃脈, 脾脈, 腎脈 등이 각각 “搏堅而長”한 경우와 “軟而散”한 경우의病症들을 설명한 것과 色脈合參을 통해 新病과 久病의 감별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脈診에 대한 내용이 위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脈象이 각각 “粗大”, “來疾去徐”, “來徐去疾”, “俱沈細數”, “浮而散”, “細而沈”, “數動一代”한 경우들의病症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도 마땅히 脈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尺은 尺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內經』의 여러 편에서 나타나는 尺膚診法の 내용을 살펴보면 『靈樞·論疾診尺』이라는 편을 따로 둘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특히 『靈樞·邪客』과 『素問·平人氣象論』에 있는 尺膚診法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靈樞·論疾診尺』에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靈樞·論疾診尺』이 尺膚診法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尺膚診法에 대해 언급한 여러 편의 내용들은 주로 尺膚의 변화와 全身의病症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며 尺膚와 臟腑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은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의 내용이 尺膚診法을 언급한 다른 편들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尺膚와 臟腑의 관계를 밝힌 내용으로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상을 종합하면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에서의 尺은 尺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위 문단은 寸口脈診法の 이론 중에서 寸關尺의 臟腑配屬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內經』에서의 寸이라는 명칭은 대부분 寸口를 가리키며 寸關尺의 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寸關尺의 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는 寸關尺의 부위와 명칭이 분명히 확립되기 이전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2. 内外의 의미

역대 醫家들의 내외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內를 內側(척골측), 外를 外側(요골측)으로 보는 견해이다.

王冰은 『黃帝內經素問』에서 “尺內，謂尺澤之內也。兩傍，各謂尺之外側也……尺外，謂尺之外側。尺裏，謂尺之內側也.”<sup>11)</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内外를 각각 內側과 外側으로 본 것이다.

樓英도 『醫學綱目』에서 “凡言外者，皆指臂之外側，凡言內者，皆指近臂筋也.”<sup>12)</sup>라고 하여 外를 팔의 바깥 쪽, 內를 팔의 힘줄 쪽이라고 하였다.

張志聰은 『素問集注』에서 “이른바 内外는 脈體가

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29. “此言臟腑之脈見之于各部者如此.”

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5.

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平人氣象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66.

1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奇病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76.

11)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6.

12)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2.

본래 圓形이니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맥의) 內側을 살피고 손가락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맥의) 外側을 살피니 맥의 양 측을 살피는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다. 이는 內外를 脈의 內側과 外側으로 본 것이며 아울러 脈의 內側과 外側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둘째는 內를 脈의 深部(重按하였을 때의 脈), 外를 脈의 淺部(舉按하였을 때의 脈)으로 보는 견해이다.

『醫宗金鑑』에서 “右寸浮候胸中, 沈以候肺. 左寸浮候臆中, 沈以候心. 右關浮以候胃, 沈以候脾. 左關浮候膈膽, 沈以候肝. 兩尺沈俱候腎, 左尺浮候小腸膀胱, 右尺浮候大腸.”<sup>14)</sup>이라고 한 것이 內外를 浮沈으로 본 것이다.

셋째는 內를 脈의 後半部(肘關節側), 外를 脈의 前半部(腕關節側)로 보는 견해이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尺外, 尺脈前半部也. 尺裏, 尺脈後半部也……左外, 言左關之前半部. 內言左關之後半部.”<sup>15)</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內外를 脈의 後半部와 前半部로 본 것이다.

張琦도 『素問釋義』에서 “尺內, 尺之後半部也. ……尺部經渠之分, 外爲前半部, 裏爲後半部.”<sup>16)</sup>라고 하였다.

위의 세 가지 견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醫宗金鑑』에 內外의 의미에 대해 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內外의 두 글자에 대해 이전 사람은 尺部の 脈을 前半部脈과 後半部脈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內側을 內로 外側을 外로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모두 틀리다. 무릇 脈의 모양은 혼연히 하나 되어 있으니 두 가닥도 아니고 또한 두 개로 나눌 수도 없다. 만약 前半部와 後半部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脈이 둘로 나뉘는 것이다. 만약

尺의 內側과 外側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脈이 두 가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학설이 모두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위의 내용 중에서 寸口의 脈은 한 가닥이므로 이것을 內側과 外側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 앞서 張志聰이 한 가닥의 脈을 內側과 外側에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스스로 말한 대로 脈은 圓形이므로 內側과 外側의 脈狀이 크게 다를 수 없다. 그러므로 內外를 內側과 外側으로 보는 견해는 실제의 脈診에 있어서 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醫宗金鑑』에서는 脈을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눌 수 없다고 하였지만 寸口를 寸關尺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맥을 前後로 나눈 것이므로 寸關尺 각각의 부분을 다시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醫宗金鑑』에서는 內外를 맥의 深部와 淺部로 보았는데 이처럼 脈을 深部와 淺部로 나누어 臟腑를 配屬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부족하다. 脈診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별점중의 하나가 바로 脈의 浮沈인데 만약 臟腑를 脈의 深部와 淺部에 배속시킨다면 臟腑脈 각각의 浮沈은 어떻게 변별할 수 있겠는가?

이상을 종합하면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에서의 內外는 寸關尺 각각의 부위를 다시 前半部와 後半部로 나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寸關尺의 각 부분을 다시 나누는 데 있어서 張介賓을 비롯한 여러 의가들은 內를 後半部, 外를 前半部로 해석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 “所謂內外者, 脈體本圓, 用指向外以候內, 向內以候外, 候脈之兩側也.”

14)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891.

15)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2.

16) 張琦.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p.55-56.

17)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908. “內外二字, 前人有以尺部一脈, 前半部脈後半部脈爲訓者, 有以內側曰內 外側曰外爲訓者, 皆非也. 蓋脈之形, 渾然統一, 并不兩條, 亦不兩截. 若以前半部後半部爲是, 則視脈爲兩截矣. 若以尺內側尺外側爲是, 則視脈爲兩條矣. 故知二說皆非也.”

		左	右
上竟上		胸·喉	
寸	外	心	肺
	內	膻中	胸中
關	外	肝	胃
	內	膈	脾
尺	外	腎	
	裏	腹中	
	內	季脅	
下竟下		少腹·腰·股·膝·脛·足	

표 1. 『素問·脈要精微論』의 寸關尺 配屬

그런데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다. 上竟上에서 寸, 關, 尺, 下竟下에 이르는 전체적인 臟腑와 신체부위의 配屬은 실제 인체의 上下關係와 일치하는데, 寸關尺 각각의 內外 部位에 있어서는 上下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關部를 예로 들면 膈이 肝보다 위에 있고 脾가 胃보다 위에 있는데 위의 臟腑配屬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하관계가 반대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각각의 臟腑와 신체부위의 上下關係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經脈』에서 “膈足少陽之脈……以下胸中，貫膈，絡肝，屬膽……肝足厥陰之脈……屬肝，絡膈，上貫膈，布脇肋”<sup>18)</sup>이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膈이 肝보다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素問·經脈別論』에서 “飲入於胃，游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sup>19)</sup>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脾가 胃보다 위에 있음도 알 수 있다.

尺부에 배속된 腎, 腹中, 季脇의 上下關係도 季脇이 가장 위에 있고 腹中과 腎이 차례대로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上竟上이 胸을 주관하는 것을 감안하면 寸部の 胸中도 肺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에서 內를 脈의 後半部(肘關節側), 外를 脈의

前半部(腕關節側)로 보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尺外以候腎，尺裏以候腹中.”에서의 內外的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 尺의 內外는 尺部の 以內와 以外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尺部 以內는 關部쪽을 가리키는 것이니 尺內는 곧 尺部の 前半部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難經·二難』에서 “從關至尺，是尺內.”<sup>20)</sup>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尺外는 尺部 以外이니 곧 尺部の 後半部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內는 脈의 前半部(腕關節側), 外는 脈의 後半部(肘關節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寸關尺 臟腑配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左	右
上竟上		胸·喉	
寸	內	膻中	胸中
	外	心	肺
關	內	膈	脾
	外	肝	胃
尺	內	季脅	
	裏	腹中	
	外	腎	
下竟下		少腹·腰·股·膝·脛·足	

표 2. 寸關尺 臟腑配屬

위의 내용을 보면 寸關尺의 전체적인 上下關係와 寸關尺 각각의 內外 구분에 따른 上下關係가 어긋라짐이 없이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前以候前，後以候後”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下竟下者，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은 결국 臟腑와 신체부위를 上下關係에 따라 寸口에 배속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박하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이며 『靈樞·五

1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經脈.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82-83.

1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經脈別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6.

20)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4.

色』에서 臟腑와 신체부위를 顔面에 배속시킨 방법과도 상통한다.

### 3. 小腸과 大腸의 배속

『素問脈要精微論』에 근거하면 小腸과 大腸은 腹中에 있으므로 尺部에 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難經』과 『脈經』에서는 小腸과 大腸을 寸部에 배속시켰다. 이에 小腸과 大腸의 寸關尺配屬에 대한 여러 醫家들의 학설을 살펴보고 『素問脈要精微論』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小腸과 大腸을 寸部에 배속한 경우는 『難經』과 『脈經』을 들 수 있다.

『難經·十八難』에서는 “手太陰陽明은 金이고 足少陰太陽은 水이다. 金이 水를 낳는데 水는 아래로 흐르고 위로 올라올 수 없으므로 下部에 있게 된다. 足厥陰少陽은 木이며 手太陽少陰火를 낳는다. 少陰은 火이니 火는 위로 불타오르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上部가 된다.”<sup>21)</sup>라고 하였다. 이는 小腸과 大腸이 모두 寸口의 上部에 배속됨을 의미한다.

『脈經』에서는 “心部는 왼 손의 關部 앞 쪽에 있다. 寸口가 이것이니 즉 手少陰經이다. 手太陽經과 表裏가 되고 小腸이 합하여 府가 된다.……肺部는 오른 손의 關部 앞 쪽에 있다. 寸口가 이것이니 手太陰經이다. 手陽明經과 表裏가 되고 大腸이 합하여 部가 된다.”<sup>22)</sup>라고 하여 小腸과 大腸이 寸部에 배속됨을 분명히 하였다. 劉完素와 李昉 등도 이 학설을 따랐다.

小腸과 大腸을 尺部에 배속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中梓는 『醫宗必讀』에서 “(脈要精微論에서) 大小腸膀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腹中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3)</sup>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景岳全書』에서 “무릇 小腸과 大腸은 모두 下部의 腑이니 마땅히 양쪽의 尺部에 응한다. 그런데 脈의 양쪽 尺部에서 왼 쪽은 水의 부위가 되니 眞陰이 머무는 곳이다. 오른 쪽은 火의 부위이니 元陽의 근본이다. 小腸은 火에 속하고 火는 火의 부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마땅히 下部의 오른쪽에 배속된다. 大腸은 金에 속하고 水와 서로 따르기 때문에 마땅히 下部의 왼쪽에 배속된다.”<sup>24)</sup> 라고 하여 小腸을 右尺部, 大腸을 左尺部에 각각 배속시켰다.

『醫宗金鑒』에서는 “兩尺은 兩腎을 주관한다. 左尺은 小腸과 膀胱을 주관하고 右尺은 大腸을 주관한다.”<sup>25)</sup>라고 하였다.

尤怡는 『醫學讀書記』에서 “脾는 胃와 합하고 肝은 膽과 합하고 腎은 膀胱과 합하는데 이 臟腑들은 모두 서로 붙어 있으므로 그 진단하는 곳도 또한 한 곳에 같이 있다. 左關으로 肝膽을 진단하고 右關으로 脾胃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肺는 大腸과 합하고 心은 小腸과 합하고 心包는 三焦와 합하는데 이 臟腑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진단하는 곳도 또한 반드시 한 곳에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內經』의 ‘上竟上, 下竟下’의 이치를 살펴보면 大腸은 右尺에서 살피는 것이 마땅하고 小腸은 左尺에서 살피는 것이 마땅하고 三焦는 上中下 三部에서 나누어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sup>26)</sup>라고 하였다. 이는 小腸과 大腸이 인체의 下部에 위치하므로 이들을 尺部에 배속시킨 것이며, 각각 表裏

23)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42. “不及大小腸膀胱者, 統于腹中也.”

24)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0. “夫小腸大腸皆下部之腑, 自當應于兩尺. 然脈之兩尺, 左爲水位, 乃眞陰之舍也. 右爲火位, 乃元陽之本也. 小腸屬火, 而火居火位, 故當配於下之右. 大腸屬金, 而水相從, 故當配於下之左.”

25) 吳謙 等編. 醫宗金鑒.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890. “兩尺兩腎, 左小膀胱, 右大腸認.”

26) 尤在涇. 尤在涇醫學全書醫學讀書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9. “脾與胃合, 肝與膽合, 腎與膀胱合, 其臟腑皆相依附, 則其診候亦應同在一部. 如左關肝膽, 右關脾胃是也. 肺與大腸合, 心與小腸合, 心包絡與三焦合, 其臟腑不相依附, 則其診候亦不必同在一部. 按內經上竟上, 下竟下之理, 是大腸當候之於右尺, 小腸當候之於左尺, 三焦當分候上中下三部.”

21)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1-32. “手太陰陽明金也, 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厥陰少陽木也, 生手太陽少陰火. 少陰火, 火炎上行而不能下, 故爲上部.”

22) 王叔和.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 “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 卽手少陰經也. 與手太陽爲表裏, 以小腸合爲府.……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 手太陰經也. 與手陽明爲表裏, 以大腸合爲府.”

를 이루는 臟의 위치에 따라 小腸을 左尺에 大腸을 右尺에 배속시킨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비록 小腸과 大腸의 左右配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을 尺部에 配屬시켰다는 점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내용과 부합된다.

樓英은 『醫學綱目』에서 “尺脈이 浮하면 대변이 乾澀하고, 尺脈이 芤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尺脈이 滑하면 下焦에 정체된 寒氣가 있다.”<sup>27)</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임상에서 大腸, 膀胱, 下焦의 病症들을 尺脈을 통해 진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대 의가들 중에서 小腸과 大腸을 尺部에 배속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실제 임상에서 小腸과 大腸의 病變을 尺部에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素問·脈要精微論』의 臟腑配屬은 매우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결론

『素問·脈要精微論』의 “尺內兩傍則季脅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膈,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臍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에서 尺의 의미와 內외의 부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위 문단은 獨取寸口法에서 臟腑와 신체부위를 각각 寸關尺에 배속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尺은 尺脈의 의미이다. 이를 尺部診法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2. 위 문단에서의 內外는 寸關尺 각각의 부위에서의 前半部와 後半部를 의미한다.
3. 위 문단은 臟腑와 신체부위를 상하관계에

따라 寸關尺에 배속시켰다. 이에 근거하면 小腸과 大腸은 腹中을 주관하는 尺部에 배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속방법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임상에서 실제적인 의의를 지닌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5, 42, 59, 66, 86, 176.
2.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1.
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29.
4. 楊上善 著. 李克光等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511.
5. 丹波元簡.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12.
6. 王冰. 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06.
7.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2, 36.
8.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3.
9.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890, 891, 908.
10. 張琦. 素問釋義.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8. pp.55-56.
11. 張介賓. 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2.
1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82-83.
13.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1-32.
14. 王叔和.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8.

27)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36. “尺浮則大便乾澀, 尺芤則小便有血, 尺滑則下焦停寒.”

15. 李中梓. 醫宗必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42.
16.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0.
17. 尤在涇. 尤在涇醫學全書醫學讀書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9.